

# 한국차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a Culture Space in Korea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학과  
박사과정 이 일 희  
교 수 최 남 숙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Lee, Il Hee\*

*Professor* : Choi, Nam 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한국의 차문화공간              | 참고문헌   |
| III.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사례분석과 활용계획 |        |

## 〈Abstract〉

This thesis attempted to generate ideal tea culture space that connects environment and culture. Therefore, this examines:

First, history of t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ea culture space from Gochosun to modern times was reviewed.

Second, psychological factors (spirit of tea) of Korea tea culture space were reviewed.

Thir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tea culture space and Human Ecosystem Model by was analyzed. Also, this thesis examined how the culture of ecosystem and why tea culture space is needed, because tea includes varieties of ingredien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pollution.

Finally, tea culture spaces were reviewed each region during Chosun dynasty, and tea culture space of recent tea users. In order to study tea culture space, complex residential area and single residential areas were compared. The useful of tea culture space as a ecological space was also examined.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일희 (sohaklee@hanmail.ne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ated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investigations of museums and a survey on modern living space we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space of our tea culture were affected by nature worshipping of Gochosun, Buddhism of Koryo, and Confusionism of Chosun with "Pungryu", the idea that enjoys nature, thereby applying environment-friendly ecological beauty to their living space and life. The cultural space in Korea is composed of natural environment such as mountain, sea, rock, or trees and artificial environment such as pond or pavilion.

In the future, oriental culture with metaphysical value will lead the world culture, and especially, tea cultur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regardless of nationality, race, religion, and ideology. Therefore, establishing a tea culture space in a living space would be the fundamental methods that would be able to settle down such tea life into our daily life. Our attempts to create ecological tea culture space as a integrated cultural space of natural, artificial, and human behavioral environment will contribute to enhance our quality of life.

**Key Words :** Tea Culture Space in Korea(한국의 차문화공간), Eco-Tea Culture Space(생태적 차문화공간), Mental of Tea Culture(차의 정신), Review Tea Culture Space(차문화공간의 사례분석), Create ecological Tea Culture Space(생태적 차문화공간의 모색)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고조선시대부터 신선 사상에 따른 다도수련이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져 차를 마시며 산천을 소요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풍류정신으로 이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차가 불교와 더불어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정신으로 꽃을 피웠고 조선시대에는 다례의식을 제정하였으며 선비의 총절과 부녀자의 정절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차정신은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러나 차문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차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차문화공간은 산, 들, 냇가, 연못가, 나무 밑, 바위 등의 자연 상태이거나 정

자(亭子)와 대(臺), 현(軒), 당(堂) 등의 축조물을 사용한 차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차문화공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연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과학적이며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건전한 생태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차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요소를 분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 및 인체건강과 환경보전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공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시대별 변천과정을 분석하였고 조선시대 지역별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사례, 현대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여 생태적 차문화공간으로

서의 한국 차문화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대 차문화공간에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차문화공간의 생태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차문화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차문화공간의 역사적 고찰과 차문화 정신의 정립, 생태적 차문화공간을 연구함으로써 실제생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내용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차문화 공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생태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차문화공간을 재발견하고, 현대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의 차문화공간의 생태미학적인 지혜를 받아들여 현대 생활문화에 접목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차문화공간의 역사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한국의 차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인 축조물, 차도구, 장식품과 정신적 요소인 차의 정신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개념, 생태계와 차문화공간의 조화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조선시대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현대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현대 차문화공간에 자연친화적이며 환경보전적인 생

태적 공간으로서의 차문화공간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상적인 생태적 차문화공간을 계획한다.

### 2) 연구방법

위와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문화공간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산해경」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구려의 벽화고분」 및 그외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견학하고 각 개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사진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생활공간으로서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조선조 지식인의 차문화 공간(고산, 다산, 초의, 추사, 이후, 점필재, 율곡 등 8사례), 현대 차문화공간(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각 3사례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역사적 차문화공간의 특징과 현대 차문화공간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현대 차문화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히고 현대에 적합한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활용계획을 검토하였다.

## II. 한국의 차문화공간

### 1. 시대별 차문화공간

#### 1) 고조선 시대(B.C. 2333~B.C. 108)

고조선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늘을 섬기는 신선사상(神仙思想)을 가진 선인(仙人)<sup>1)</sup>을 중심으로 정치, 종교, 제천의식(祭天儀式)<sup>2)</sup>등이 계승

1) 신선(神仙)이 되고자 도(道)를 닦는 사람

2)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원시종교의식. 부여에서는 영고(迎鼓)라 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신달에 지냈으며(운평어문연구소편 국어대사전 0-8, p.2349) 삼한(三韓)때 예(讖)·마한(馬韓)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농사를 마치고 10월에 지냈다.(위의 책, 7-8, pp.1192~1193) 고구려는 동맹(東盟),백제는 교천(郊天), 신라는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선도수련의 방법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고구려의 선인도랑(仙人徒郎) 제도, 신라의 화랑도(花郎徒·風月徒)<sup>3)</sup>에 전승되었으며, 이들의 수행덕목인 화랑도(花郎道), 풍류도(風流道)<sup>4)</sup>의 정신이 훗날 한국의 차정신으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에 참여하여 선도를 수련하는 선인(仙人)들은 거의 다도수련(茶道修鍊)을 쌓아야만 했다.(석용운, 1993)

선인이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곳을 웅(雄) 또는 대웅(大雄)이라 하였다. 하우(夏禹)가 엮고 유수(劉秀)가 보수(補修)한 「산해경(山海經)」권 7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대황(大荒: 만주)가운데 산이 있는데 이름을 불함(不咸: 白頭山)이라고 한다. 속신(肅慎: 朝鮮)씨의 나라이다. 속신씨의 나라는 백의민족이 사는 나라이며, 북쪽에는 수(樹: 인물이 모이는 곳)가 있는데, 이름을 웅(雄: 장부, 무사, 화랑)이라고 한다. 항상 삼황오제(三皇五帝: 八代帝)를 여기에서 선발해 왔다. (大荒之中有山 名月不咸 肅慎氏之國 肅慎之國 在

白民之國 北有樹 名曰雄 常先八大帝 於此取之)'(하우저, 박일봉편역, 1995) 라고 하였다.

이 곳에서 선인들은 의무적으로 다도 수련을 했는데 옥전결(玉筮訣)의 중권(中卷)에 있는 설생불사(說生不死)의 장생법(長生法)과 단차(丹茶) 만드는 법을 익혀 수련에 적용하였다.(석용운, 1993). 따라서 큰 나무가 있는 웅(雄)은 선인들이 제천의식과 황제를 뽑는 종교와 정치가 이루어지는 의식의 장소이며, 선도를 수련하여 인재를 기르는 훈련장이며, 단약(丹藥)이나 단차(丹茶)를 먹고 다도 수련을 하는 차문화공간이다.

즉 고조선의 차문화공간은 큰 나무아래에 있는 웅(雄)이라는 곳으로 최초의 종교, 정치, 수련 등이 이루어진 복합적 공간이다. 이곳은 수목숭배사상과 신선사상이 합일된 형이상학적인 공간으로 우리 겨레가 최초로 선도수련과 다도수련을 한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차문화공간<sup>5)</sup>이었다.

팔관회(八關會)라 하여 하늘신(天神)과 민족신에게 제사지내고 춤추고 즐겼다.(위의 책, p.880) 정영선은 「한국茶文化」에서 신라 팔관회때 왕과 신하가 차를 마시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것은 위의 제천의식이 기원이 되었다고 하였다(정영선, 한국茶文化, 너럭바위, 1998, p.116)

- 3) 화랑도(花郎徒)는 신라시대에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 국선도(國仙徒)·풍월도(風月徒)·원화도(源花徒)·풍류도(風流徒)라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우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효제(孝節)와 충신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요(大要)를 삼는다> 하였고, 《삼국사기》에는 <처음에는 군신(君臣)이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어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떼지어 놀게 하여, 그 행실을 보아 거용(擧用)하려 하였다>하고, 이들은 <서로 도의를 닦고, 서로 가악(歌樂)으로 즐겁게 하며, 명산과 대천(大川)을 찾아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 중에 나쁘고, 나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어, 그 중의 착한 자를 가리어 조정에 추천하게 되었다>고 그 설치목적과 수양과정을 적고 있다. 이로 미루어 화랑도의 설치는 인물을 양성하여 그 가운데 인재를 가려서 국가에 등용함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소기(所期)의 성과에 대해 《삼국사기》는 <원좌(賢佐: 賢相)와 충신이 이로부터 솟아나고, 양장(良將)과 용졸(勇卒)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하였다.(동아백과사전부, 「원색동아백과사전」 30, 1990. PP. 359-360)
- 4) 화랑들이 풍치가 좋은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지켜야 하는 도리로 삼교(三教: 유교, 불교, 도교), 삼덕(三德), 오계(五戒)를 말함.

삼덕(三德)은 ① 정직(正直), 강(剛), 유(柔) ② 지(智), 인(仁), 용(勇) ③ (佛)-법신덕(法身德), 반야덕(般若德), 해탈덕(解脫德), 기독교-믿음, 소망, 사랑을 말함  
오계(五戒) ① 사군이충(事君以忠) : 충으로써 임금을 섬김  
② 사친이효(事親以孝) : 효로써 부모를 섬김  
③ 교우이신(交友以信) :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  
④ 임전무퇴(臨戰無退) :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음  
⑤ 살생유택(殺生有擇) : 살생은 가려서 함  
(운평문화연구원소편「국어사전」, 금성교과서, 1990. P.997, P.1096)

2) 가야 시대(B.C. 42-A.D. 562)

가야시대의 차문화공간으로는 김수로 왕의 사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에 차와 함께 제수를 사당에 진설하여 올렸다면 가변적이긴 하나 사당이 가야의 차문화공간이 되며 왕묘에서 지냈다면 왕묘가 가변적 차문화공간이 된다. 따라서 가야시대의 왕묘는 조상에게 헌다한 장소로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실외 차문화공간이 되며, 사당에서 지냈다면 이곳은 조상에게 건물 내부에서 헌다한 실내 차문화공간이 된다.

3) 삼국시대

(1) 고구려(B.C. 37-A.D. 668)

고구려시대의 차문화 공간은 방(房)을 활용한 차문화공간이다. <그림3>과 <그림4>를 보면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공간과 차를 달이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림3>은 주인과 손님이 주동객서(主東客西)의 위치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손님은 스님인 듯하고 주인은 공수하고 앉아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즉 불법에 의해 정신적 차원을 높이는 형이상학적인 면이 강조되는 방(房)을 활용한 차문화공간이다.

<그림 1> 舞踊塚① (主室天井壁 接見圖, 5세기 후반)



출처: 석용운, 韓國茶藝, 1993, p.290

<그림 2> 舞踊塚② (主室天井壁 接見圖, 5세기 후반)



출처: 최무장, 임연철, <고구려 벽화고분>, 1992, p.34

(2) 백제(B.C. 18-A.D. 668)

1971년 무령왕(武寧王: 501-523)릉의 묘에서 여러 개의 찻잔이 발굴되었고, 백제의 대표적인 미륵사지 석탑에서도 찻잔이 출토되어 백제 때 차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동탁은잔은 궁궐에서 왕과 왕족들이 찻잔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교가 발달한 백제에서 스님들이 부처님께 차공양을 했으며 차를 마시며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굴된 찻잔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백제의 차문화공간은 궁궐내 왕실과 미륵사지 사원으로 추정된다.

(3) 신라(B.C. 57-A.D. 935)

또한 「삼국유사」에 충담선사가 차를 끓일 수 있는 일체의 도구들을 걸망 속에 넣어 짊어지고 다니며 차를 마시고 싶거나 헌다(獻茶)할 일이 있으면 차를 달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일연지음 김원중 옮김, 2003) 이것은 충담이 부처님께 차를 올린 남삼삼화령과 임금께 차를 올린 귀정문 누상은 최초의

5) 생태적이란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임을 뜻하는데, 생태는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계에서 Eco-system, Eco-city, Eco-polis란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Rechard Register, 「Eco-city Berkeley」, 鶴田 築作 譯, 工作舎, 1993, p.24) 이를 응용해 Eco-tea culture space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친자연적, 인간적인 차문화공간을 뜻한다. 생태계의 일환인 자연현상-공기, 물, 소리, 빛, 풀, 흙, 인간, 차 등이 차문화공간에 작용하므로 차문화공간을 생태적 차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과 들, 냇가, 나무 아래 등과 같은 실외공간과 안방, 사랑방, 대청, 정자, 루 등의 실내공간이 곧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좋은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 의식다례의 효시를 보여준 생태적 차문화 공간이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들은 한송정(寒松亭)이나 경포대(鏡浦臺)같은 정자(亭子)나 누대(樓臺)에서 차 마시기를 즐겨했다. 한송정은 신라시대 선랑(仙郎)들이 차를 달여마시며 놀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한송정은 강릉부 동쪽 15리에 있는데 동쪽으로 큰 바다에 인접해있고, 소나무가 울창하다. 정자곶에 다천(茶泉), 석조(石竈), 석구(石臼)가 있는데 이는 술랑선도(述郎仙徒)들이 놀던 곳이다. (在府東十五里, 東臨大海 蒼松鬱然 亭畔有茶泉石竈石臼 卽述郎仙徒所游處)(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한송정-강릉 누정조> 경포대에서 도 차를 달여마신 흔적이 있다.

‘경포대에 오르니 대(臺)에는 전에 집이 없었는데 요즘 호사자(好事者)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으며 옛날 신선의 석조(石竈)가 있으니 대개 차를 달이는 그릇이다.(上鏡浦臺 臺舊無屋 近好事者爲亭其上 有古仙竈 蓋煎茶具也)’ <동문선, 제71권 (가) 동유기> 따라서 한송정과 경포대는 화랑들이 산천의 자연에 동화되며 차를 마시던 곳으로, 그들이 산천을 소요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각조(覺照)를 이루려는 차문화공간이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의 차문화공간은 들, 산,

누상 등의 장소에 구애됨 없이 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차를 달여 마실 수 있었다. 충담스님에게는 짙어졌던 앵통<sup>6)</sup>만 내려놓으면 그 곳이 바로 차문화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즉 신라시대의 차문화공간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과 실내에서 자유롭게 생태공간을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다.

#### 4) 고려 시대(918-1392)

고려시대에는 다방<sup>7)</sup>, 다군사<sup>8)</sup>, 다시<sup>9)</sup>, 다원<sup>10)</sup> 등의 차와 관련된 관료기구나 다촌<sup>11)</sup>, 다점<sup>12)</sup>, 다소<sup>13)</sup> 등의 용어가 문헌에 자주 나올 만큼 차가 왕으로부터 귀족과 백성들에게 이르기 까지 생활화 되었다. 따라서 고려인들의 차문화공간은 왕궁, 관청, 상업적인 다점, 민가 등 그 범위가 넓다.

고려의 궁중에서는 왕실의 별궁인 수덕궁에 지은 정자는 차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왕실의 차문화공간이 되었다.

문인들과 승려들의 다시(茶詩)와 문헌에 나타난 차문화공간에 대한 용어는 헌(軒), 옥(屋), 당(堂) 정(亭), 루(樓) 재(齋), 실(室), 거(居), 점(店), 촌(村), 방(房), 암(庵, 菴), 려(慮)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의 표현은 시를 쓸 때 머물렀던 당호(堂號)를 쓰거나 운(韻)에 맞추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박연근,

- 6) 앵통(櫻桶), 앵두나무나 뽕나무로 엮어 짙은 찻그릇을 담은 바구니(신라 충담스님이 짙어지고 다닌 통으로 삼화령의 머루세존과 귀경문 루에서 경덕왕께 헌다할 때 찻그릇을 담았던 통)
- 7) 다방(茶房)은 조정이나 궁중의 행사에 차를 준비하고 올리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관청을 말한다.
- 8) 다군사(茶軍士)는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기 위해 짐을 나르는 군인을 말한다.
- 9) 다시(茶時)는 차를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뜻으로 사헌부에서 행하던 일정한 시간에 차를 마시는 제도이다.
- 10) 다원(茶院)은 임금, 관원, 승려, 귀족이 먼 길을 가다가 쉴 수 있는 국영여관을 말한다.
- 11) 다점(茶店)은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을 치르고 차를 사거나 마시는 집, 즉 오늘 날의 찻집을 말한다.
- 12) 다소(茶所)는 포로 등의 친민집단이 거주하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금, 은, 구리, 철, 종이, 차, 자기 등의 업종을 갖고 그 생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 13) 다촌(茶村)은 차마을, 즉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던 마을을 말한다.

<표 1> 시대별 차문화공간 분석

국가	수련 및 행다인	공양대상	기본사상	차문화 공간	연 대	의례의형식	문헌 및 사료
고조선	선인(仙人)	천신(天神)	수목숭배사상 신선사상	웅(雄), 대웅(大雄)	B.C.2333	제천의식	산해경 권7 <해외사경>
가야	갱세급간	수로왕, 왕비	신선사상 불교	사당	661	제례시 현대의식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고구려	시종과 시녀	스님	신선사상 불교	거실	B.C. 37 A.D. 668	일반행다법	<무용총벽화>
백제	시종과 시녀 스님	왕, 부처님	신선사상 불교	왕실, 사원	B.C. 18 A.D. 660	진대의식 현대의식	동탁은관 미륵사지석탑
신라	사포성인	원효	신선사상 불교	원효방	B.C. 18 A.D. 660	일반행다법 현대의식	동국이상국집 권23기(記), <남행월일기>
	시종과 시녀	왕, 왕족, 귀족	신선사상 불교	입해전	674- 931	진대의식	삼국시기 <신라본기>
	스님	부처님	신선사상 불교	다연원	700년대초	현대의식	삼국유사
	보천·효명 천인(天人)	문수보살 보천태자	신선사상 불교	오대산	681-692 742-765	현대의식	삼국유사 권3 <대산오만전신 명주오대산보살도 태자전기>
	충담	미륵세존 경덕왕	신선사상 불교	남산삼화령 귀정문루	765	현대의식	삼국유사 권2 <경덕왕충담사>
	국선·화랑	천신	신선사상 불교	한충정과 경포대	B.C. 57 A.D. 935	신선종류 행다법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강릉대도호부 누정>
	최치원	부모님	신선사상 불교	방	885	일반행다법	계원필경 권18 <사신다장>
고려	다군사	왕, 왕족 관리	불교	왕실	918 -1392	진대의식	고려사
	관리	임금, 광원, 귀족, 승려		사헌부(다시)		다시	
	상인	일반인		다원(객사, 여관)		객사(여관) 진대의식	
	일반인	일반인		다점(상업공간)		일반행다법	
	스님	부처님		민가		일반행다법	
	왕, 귀족, 관리	왕, 부처님		사찰		현대의식	
	백성	산천초목		전국(연등회)		연등회 현대의식	
조선	다방관리	왕, 귀족	유교	궁궐의 정자, 투	1392 -1910	진대의식	조선왕조실록
	다색, 다모	관리	유교	사용원, 혜민국		일반행다법	조선왕조실록
	선비, 다동	선비	유, 불, 선	청, 재, 당, 헌, 옥 바위, 산, 강		일반행다법	용재총화
	스님, 다각	부처님, 스님	불교	사찰, 암자		현대의식 일반행다법	한국 역대고승의 다시
	일반인	일반인	유, 불, 선	실, 방, 청, 투, 바위, 산, 강		일반행다법	한국의 다시감상

1993)를 보면 바위가 달린 정자를 만들어 필요한 도구를 싣고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규보의 '사툰정'은 자연법칙에 준하고 자연에 순응하려는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으며 자연, 종교, 학문, 사회, 풍류가 깃든 지

도자 및 선비의 차원 높은 고려시대의 정자건축이자 이동식 차문화공간이었다.

또한 고려의 선승들이 주석한 사찰과 암자 등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차문화공간이다.

이렇듯 고려의 왕실과 문인들과 승려와 선

비들은 다양한 당호를 가진 곳에서 차를 마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두 자연을 즐기며 자연에 동화되어 시공을 초월하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즉 고려인들의 차문화 공간은 풍류를 즐기는 놀이공간으로서 정신세계를 아우르는 자율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차문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조선 시대(1392-1910)

조선시대의 차문화공간은 궁궐(宮闕), 관청(官廳), 재(齋), 당(堂), 강(江), 산(山), 너럭바위(盤石), 초당(草堂), 암(庵), 정자(亭子), 루(樓) 등 그 범위가 넓다. 이것은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차문화공간이었다. 조선시대의 궁궐에는 정자(亭子)가 여러 곳에 있으며 화려한 루(樓)도 있다. 이러한 정자는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던 중 휴식과 차를 마시며 자연을 즐긴 차문화공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복궁의 경회루에서는 사신을 맞이하거나, 연회시에 차도 같이 올려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변적이고 생태적인 누각건축의 대표적 사례인 경회루는 조선시대의 차문화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선비나 백성들이 풍류를 즐긴 차문화공간으로 정자(亭子)가 있다. 관동지방에는 오은 거사가 지은 활래정(活來亭)이 있는데, 그 내부에 손님을 대접할 때 차를 끓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 밖에도 세검정(洗劍亭), 고송정(故松亭), 향미정(杭眉亭), 식영정(息影亭) 등 수 많은 정자가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에

순응·동화·귀의하려는 민족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열려있는 가변적으로 사용된 차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차문화공간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 2. 차문화공간의 구성요소

차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실외적 요소와 실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차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실외적 요소인 축조물에는 단(壇)과 대(臺), 정원(庭園), 연못, 정자(亭子)와 루(樓), 헌(軒), 재(齋), 당(堂), 각(閣), 실(室), 암(庵), 러(廬), 거(居) 등이 있다. 또한 차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실내적 요소에는 차도와 조형적 소품이 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요소인 인식체계로서의 차정신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 중에서 전시대를 거쳐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차의 정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주경관(宇宙景觀)은 하늘, 땅, 사람, 돌, 나무, 물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이러한 우주경관을 감상하며 자연적인 공간에 인위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인위적인 공간에 자연물을 끌어 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양사상(陰陽思想)<sup>14</sup>과 천지인(天地人)의 삼재사상(三才思想)<sup>15</sup>, 빛과 물과 바람에 의한 풍수사상(風水思想)<sup>16</sup>,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늘을 섬기는 신선사상(神仙思想)<sup>17</sup> 등을 바탕으로 주(主)와 종(從), 분(分)과 취(聚), 자력(自

14) 음양사상(陰陽思想)이란 역학(易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음과 양의 상반된 두 가지 기운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낸다는 사상을 말한다. 음과 양은 달과 해, 겨울과 여름, 북과 남, 여자와 남자 등으로 나타난다(운평어문연 구소편, 국어대사전, 1996, p.2606). 이와 관련하여 음양의 원리를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변천으로 설명하는 것을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라고 한다(동아백과사전 편집부, 원색세계대백과사전 22, 1990, p.618).

15) 삼재사상(三才思想)이란 천지(天地)의 움직임을 무한한 조화와 목적이 있는 법칙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즉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이며 스스로 만



力)과 타력(他力), 명(明)과 암(暗), 정(靜)과 동(動)의 원리를 응용한 신비로운 4차원(四次元)의 경관(景觀)을 단(壇), 대(臺), 정원건축물(庭苑建築物)과 석조물(石造物) 등에 도입하여 복합적인 정원경관을 발전시켜왔다.(민경현, 1991)

이러한 한국의 전통건축에 있어서 정자건축은 루의 건축과 함께 차문화 공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자건축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자연과의 융합성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자연에 동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자는 신체의 휴식이나 잔치, 놀이를 위한 기능보다는 자연인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려는 정신적기능이 더 강조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박연곤, 1993)

즉 자연은 인간의 모태(母胎)이며, 이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야 할 인간의 귀의처(歸依處)인 것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통하여 자연에 동화(同化)되려는 마음은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라는 사상을 싹트게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은 산, 들, 나무, 바위 등 자연 상태의 찻자리나 정자, 루 같은 건축적 찻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자연의 원리, 즉 우주의 원리인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도(道)를 깨닫는 동양정신(東洋精神)이 발로된 풍류도(風流道)이다.

화랑정신(花郎精神)인 풍류도(風流道)는 고조

선(古朝鮮)의 선교(仙敎)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후일 이 정신은 한국의 차정신으로 발전하였다. 최치원 이 지은 신라의 화랑 ‘난랑(鸞郎)’을 위해서 건립한 난랑비서(鸞郎碑序)를 보면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고 하였다. 풍류의 근본 사상은 삼교(三敎: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것인데 선사(仙史)에서는 삼교를 ‘집에서 효도하고 벼슬길에서 충성함은 노사구(魯司寇; 공자)의 뜻이고, 무위로 일하고 말없이 가르침은 주주사(周柱史; 노자)의 뜻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함은 축건태자(竺乾太子;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住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김부식지음, 이병도 역주, 2002)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화랑들은 삼교(三敎)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삼덕(三德)을 가꾸고 오계(五戒)를 지키며 자신과 국가를 위해 수련하였던 것이다. (주5 참고) 석용운은 원효, 충담, 월명, 최치원 등 신라 차의 달인(達人)들 대부분이 화랑출신이거나 신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 점으로 볼 때 고조선의 신선사상을 가진 선인들의 차 생활이 신라 화랑으로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

물을 기르는 천지의 작용에 참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다(동아백과사전편집부, 원색대백과사전 16, 동아출판사, 1990, p.274).

- 16) 풍수사상(風水思想)이란 물과 바람을 생명체의 중요한 기본요소로 보고 바람과 물을 사람의 생활 속으로 끌어 들여 지리적 조건에 맞추어 해석하고 응용하는 사상을 말한다. 이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곳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박시의,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 p. 14). 이와 관련하여 산세(山勢), 지세(地勢), 수세(水勢)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연결시키는 것을 풍수지리사상(風水地理思想)이라고 한다(동아백과사전 편집부, 원색세계대백과사전 29, 1990, p.99).
- 17) 신선사상(神仙思想)이란 불로불사(不老不死)의 기술을 닦고神通력을 얻기 위하여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늘을 섬기는 사상을 말한다.神通력을 얻은 사람은 선자(仙者), 선인(仙人)이라 한다고 하였다. 신선(神仙)은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想)과 도교(道敎)의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이다(운평문화연구소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9, p.2045).

다.(석용운, 1993)고 하였다. 그러므로 풍류도가 신라의 차문화공간에서 형이상학적 차정신으로 작용하였으며 한국의 차정신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3.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

#### 1)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개념

차문화공간이란 차와 공간의 상관관계를 이상적으로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차 정신이 배어있는 실내외의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조상들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세련되게 차문화를 즐기면서 그 공간을 가변적으로 창출해냈다. 우리의 차문화는 전통적 생활공간과 자연 속에서 자연생태계와 더불어 공생해왔던 것이다.

미시건 대학 Morrison<sup>18)</sup>의 인간생태학모델(Human Ecosystem Model)에 따르면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간행동환경이 인간환경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각 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은 공간과 시간, 물리적·생물적 요소로 된 자연에 의해 형성된 환경으로 인간생활을 뒷받침한다.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에너지와 물질을 제공한다. 둘째, 인공환경은 인간에 의해 변경, 창조된 환경으로 변형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구조를 포함한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물리적·생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적용한 결과이며 인간의 지적·사회적 산물이다. 셋째, 인간행동환경은 인간과 인간의 심리적·사회적·생물리학적 행동환경으로 인간 간의 관계, 의사소통, 자기성취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최남숙, 1999)

위의 모델을 차문화 환경 즉 차문화공간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큰 나무 아래의 웅(雄)으로 대표되는 고조선 시대의 차문화공간과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들, 뜰, 산, 나무 밑, 냇가 등의 자연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한 신라시대의 차문화공간은 자연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송정과 경포대로 대표되는 신라시대의 차문화공간과 수덕궁으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차문화공간과 세검정(洗劍亭), 고송정(故松亭), 향미정(杭眉亭), 식영정(息影亭)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차문화공간은 전(殿), 원(院), 누(樓), 정(亭), 대(臺) 등의 인공축조물을 사용한 인공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려시대 대표적 차문화공간인 다방, 다원, 다촌, 다점, 다소 등은 고려인의 삶을 담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사회적·생물리학적 행동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시대를 통해 차문화공간에서 행해졌던 행다(行茶)와 행다와 함께 오고갔던 다담(茶談), 시회(詩會) 등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반영하고 개인 간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한 인간행동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차문화공간에 있어서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즉, 자연적 차문화공간과 인위적인 차문화공간의 공통점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열려있는 자율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며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즐겁게 하는 미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에 순응·동화·귀의하려는 민족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헌식(鄭憲植)은 그의 논문 <차실의 조형(造形)과 건축체험(建築體驗)>에서 '차실(茶室)은 공간구조(空間構造)와 차회(茶會)라는 행위구조(行爲構造)가 어울려 이루어지는 의미체

18) Morrison, B.(1975), "Socio-Physical Fac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in Single Family Dwelling: An Empirical Test of a Human Ecosystem Model",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Ph. D. Michigan State University.

계의 장이다. 공간구조와 행위구조의 최종형태는 차 한잔으로 현현(玄玄)되어 개인의 인식체계(認識體系)에 영향을 미친다. 차실에서 우주와 개인의 인식체계(우주-자연-차실-장식품-차종-차-개인)까지를 공통된 공간구조로 보는 것이다'(정현식, 1994) 라고 하였다. 즉 차인에 의해 창출된 차문화공간은 우주공간과 개인의 인식체계가 차를 통해 만나는 생태적 공간이다.

한편 공간 개발 용어 중의 하나로 생태도시(eco-city)란(현영조, 2002)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적 차문화공간(eco-tea-space)은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차문화공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태적 차문화공간이란 동양적 전통사상과 Morrison의 인간생태학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간행동환경의 체계를 차문화공간에 적용한 온고지신(溫故知新)적인 것을 말한다. 즉, 자연환경 그대로를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자연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 인공축조물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한 인공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 차의 정신이 구현된 인간행동환경으로서의 차문화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문화공간은 우주와 개인의 인식체계까지를 공통된 공간구조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핵심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면서 나타나는 친환경적 생활공간이며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형이상학적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생태계와 차문화공간의 조화

생태계는 지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그 지역에서 얻어지는 물, 대기, 토양 등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식하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생태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객관적 상태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본 자연환경은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평가된다.

환경을 생물 중심에서 볼 때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기는 하나 문화를 창조하고 지켜나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때는 문화환경이라고 한다. 특히 문화환경은 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지역의 정세에 크게 좌우되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그러므로 문화환경이 탁월한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생태현상은 그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훼손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경과 조림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생태현상을 보존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홍시환, 1995)

이러한 생태체계를 안정 유지시키는 것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통한다. 개발의 필요와 피해의 최소화와의 접점을 찾는 기술이 문제 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자연에 상반되는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태기술(eco-technology)을 발전시켜야 하며 살아있는 공장(생태계 또는 생물군집)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생태학적 공학(ecological engineering)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방풍, 방조, 방사, 어부림, 어도, 녹색창조, 조경 등의 적극적 방법과 천연보호구, 자연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 산업폐기물의 처리, 파괴된 자연의 복원(restoration), 인조물과 자연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홍시환, 1995)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차문화공간은 산, 들, 들, 냇가, 연못가, 나무 밑, 바위 등의 자연 상태이거나 정자(亭子)와 루(樓), 대(臺), 헌(軒), 재(齋), 당(堂), 각(閣), 실(室), 암(庵, 菴), 려(廬), 거(居) 등 인공적이다. 이것을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차를 마시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연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차문화공간은 자유와 자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와 허실상생(虛實相生)하는 철학적이고 세련된 예술적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사례분석과 활용계획

#### 1. 조선시대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조선시대 지식인의 현존하는 차문화공간을 5대 관광권<sup>19)</sup>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로 형성되어온 선현들의 전통적 생활모습을 차문화 체험을 통하여 현대에 접목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 (1) 중부권(서울, 경기, 강원지역)

##### ① 울곡 이이의 자운서원(紫雲書院)과 화석정 <사례 1>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조선중기(광해 7년, 1615)때 대학자인 울곡 이이(1536~158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이 모여 창건한 것이다. 성리학의 문하생을 많이 배출한 경기도 파주가 자운서원을 중심으로 기호학파의 산실이라고 할 때 이곳에서도 차

를 즐겼을 것이다. 이곳은 매년 10월 '울곡 문화제' 때 제향하고 헌다하며 차를 음복하는 헌다 공간이다. 울곡은 이곳에서 임진강을 조망하면서 지인들과 차를 마셨을 것으로 짐작한다.

##### ② 오은 이후의 활래정 <사례 2>

오은은 관동지방의 대지주이며 학문을 쌓았고 풍류를 즐긴 학덕높은 차인이다. 활래정 아래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고 연화차를 즐겼던 풍류의 모습이 180년된 은다기와 함께 현대의 중부(고 성기희, 2001년 작고)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상을 받드는 후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우리나라 정자내의 전통적 차문화공간과 연화차의 행다(行茶)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활래정은 온돌방과 누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옆에 한평 남짓한 방을 만들어 차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차문화공간인 차실(茶室)이 있다. 이처럼 활래정은 부속 차문화공간을 두고 그 곳에서 다동(茶童)이 차를 우려서 손님에게 대접하면 차를 마시며 풍류를 즐겼던 조선시대 정자 건축의 독특한 건축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조선시대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사례

사례	관광권	지역별	조선시대 지식인	차문화 공간	공간구분
1	중부	서울,경기 강원	울곡 이이	자운서원, 화석정	인공적이며 생태적공간
2			오은 이후	활래정	
3	충청	충청	추사 김정희	죽로지실	
4	동남	영남	점필재 김종직	예림서원, 독서루	
5	서남	호남	고산 윤선도	녹우당	
6			다산 정약용	다산 초당	
7			초의 장의순	일지암	
8	제주	제주	추사 김정희	제주도 대정의 적거지	

19)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5대관광권(중부, 충청, 동남, 서남, 제주)으로 나누었음

(2) 충청권(충청지역)

추사는 불교의 선(禪)을 정신의 밑바탕에 두고 모든 종교와 학문을 섭렵하고 포용하여 걸림이 없었다. 그가 생활했던 용산의 저택, 관악산 봉은사, 과천정의 집, 제주도 대정의 유배지 등은 추사의 차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추사 고택과 사랑채, 그리고 사랑채에 죽로지실(竹爐之室)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는 차문화공간이 예산에 있으므로 충청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3) 동남권(영남지역)

① 점필재 김종직의 예림서원 <사례 4>

점필재는 함양군수로 부임했을 때 차가 생산되지 않는 함양군민들의 차세(茶稅)를 덜어주기 위해 관영차밭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심성과 학풍은 자연스럽게 차를 가까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차문화공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필재의 문하생인 조위, 이목, 남효은, 정희량, 유효인, 김흔 등이 모두 차를 애음하고 차글을 남긴 차인이었다’(이형석, 1998)고 기술한 이형석의 논문을 보면 이곳 예림서원은 학문을 하면서 다담을 즐긴 곳으로 추측된다. 이로 보아 예림서원의 본채인 구영당(求盈堂)과 그 좌우에 위치한 돈선재(敦善齋)와 직방재(直方齋)에서도 차를 마시며 학문을 하였고, 독서루(讀書樓)는 학예와 더불어 훌륭한 계절적 차문화공간이었으며 육덕사는 다례공간으로 망자(亡者)를 위한 차문화공간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자연과 더불어 학문과 효도를 하면서 차문화를 생활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서남권(호남지역)

①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 <사례 5>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과 세연정은 차문화공간의 좋은 사례가 된다. 이것은 후일

에 차를 매개로 하여 초의, 추사, 다산과 교류하면서 불교적 문화와 유교적 문화가 실학사상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해양문화와 환경 그리고 예술문화가 종교와 융합되어 정체성이 있는 새로운 지역문화로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산의 녹우당과 세연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생태적 건축물로 높이 평가받는 동시에 또한 훌륭한 차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② 다산 정약용의 다산초당 <사례 6>

다산이 혜장을 만나 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기거하던 보은산방, 다산초당, 동암, 서암, 천일각등은 다산의 차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곳들은 자연과 조화되면서 사문철(역사와 문학과 철학)이 차와 연계되는 예도예(禮道藝)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태적 차문화공간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③ 초의 장의순의 일지암 <사례 7>

일지암은 자우홍련사(紫芋紅蓮社)과 함께 한국 전통적 경관과 건축물이 자연생태계에 조화된 한국전통적 건축의 최소단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 초가지붕의 작은 일지암은 좋은 차와(眞茶) 좋은 물(眞水), 아름다운 경관과 선풍(禪風)이 있어 차에서 중요시하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즉 일지암은 선(禪)과 시서화(詩書畫)가 차와 연계된 생태적 차문화공간이다.

(5) 제주권(제주지역)

① 추사 김정희의 적거지 <사례 8>

추사의 70년 생애중에서 9년동안 생활했던 제주도 대정읍 안성리의 적거지는 추사가 차를 심고 가꾸며 차 생활을 하면서 예술의 세계와 도의 경지를 높였던 형이상학적이면서 생

<표 3> 현대 차문화공간의 사례

(사례 9~11 : 공동주택, 사례 12~14 : 단독 주택)

사례순서	사례지	주거형태	차실 有無	주택의 형태	공간활용	공간구분
9	충청	전통적 도시형	있음	아파트	차실, 거실, 학생방, 발코니	인공적 공간
10	서울	서양적 도시형	있음	아파트	거실, 건넌방, 주방	
11	서울	절충적 도시형	있음	빌라	차실, 거실, 건넌방, 발코니	
12	경기	전통적 도시형	있음	단독주택	차실, 거실, 서재, 정원	
13	경기	생태적 전가형	있음	단독주택	차실, 손님방, 노인방, 주방, 뜰, 연못, 바위	인공적 생태적 공간
14	서울	서양적 도시형	없음	단독주택	거실, 식당, 정원	인공적 공간

태적인 차문화공간이었다. 당시에 선생의 높은 학문을 칭했던 제주도의 후학들도 추사와 함께 차생활을 즐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차문화공간은 화석정, 활래정, 죽로지실, 예림서원, 녹우당, 다산초당, 일지암, 적거지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인공적 생태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풍류를 즐기며 학문을 수행했다.

## 2. 현대 차문화공간

다음에서는 현대의 차문화공간을 주거형태별(공동주택과 단독주택)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자는 전국의 차인 중 한국 차인연합회 녹예원 회원 4명과 한국 차문화협회 회심다회(誨誼茶會) 회원 1명으로 이들은 차생활 지도 사범들로서 5~30년동안 차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일반인은 1명으로 차생활 지도 사범은 아니지만 이들에 준하는 차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사례자로 선정하였다.

### 1) 공동주택

#### (1) 전통적 도시형 (사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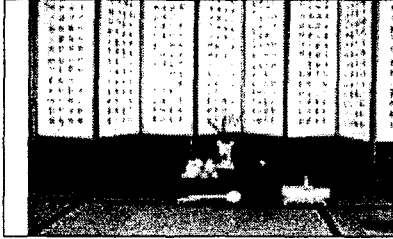
<사례 9>는 32평형 아파트 공간에 격조있

는 차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주부의 자기개발과 가족의 단란을 이루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곳은 주부가 차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로 공간을 적절히 안배하면 훌륭한 차문화공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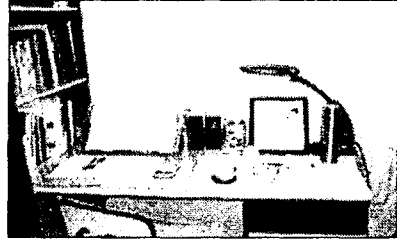
<그림3>은 아파트 공간에 따로 마련한 차실로서 다구를 비롯한 병풍, 돛자리 등으로 장식하여 안정감이 있다. 현재 이 공간은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하고 있다. 초의선사의 동다송이 씌어진 8폭 병풍이 차문화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어느 한 공간을 차문화공간으로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파트 공간에도 바람, 빛, 물 등이 사람과 함께 조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생태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림4>와 같이 항상 보온병과 1인용 찻잔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자녀)방은 공부하는 도중 학생이 수시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실과 같은 가족의 공동실도 차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그림5>. 이 경우 거실이 1주일에 2회 차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생태공간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발코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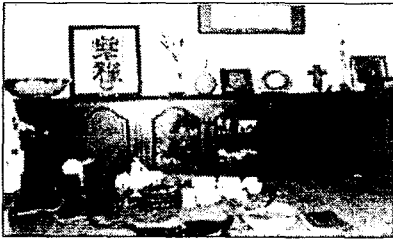
<그림 3> 차문화공간의 예: 차실



<그림 4> 차문화공간의 예: 학생방



<그림 5> 차문화공간의 예: 거실



<그림 6> 차문화공간의 예: 발코니



다. 발코니(그림 6에 돛자리를 깔고 야외용 다구함을 들고 나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하게 자연에 열린 생태적 공간으로 작은 화분과 간단한 꽃꽂이가 분위기를 살려준다

## 2) 서양적 도시형 (사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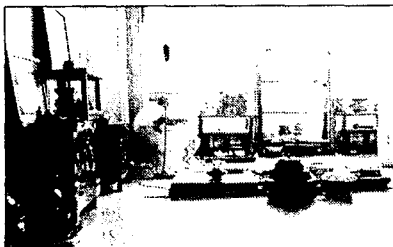
<사례 10>은 31평형 아파트 공간에 안방을 제외한 거실, 건넌방, 문간방을 전문 차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꾸며놓았다. 이 사례는 현대 차문화 공간에 한국의 차(茶)와 예(禮),

침선문화(針線文化)를 재현해 놓은 좋은 사례이다.

거실에 마련한 차문화 공간은 전문적인 차교육장으로 일주일에 2회 차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초·중·고급반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예절, 차생활, 바느질, 고전(古典) 등을 가르치고 있다<그림7>. 주방에 마련한 찻자리는 꽃꽂이와 다병, 다과그릇이 잘 조화되어 있고, 회원들이 교육을 끝내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그림8>.

불박이 다구 수납공간이 있어서 다구에 먼지가 끼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림 7> 차문화공간의 예: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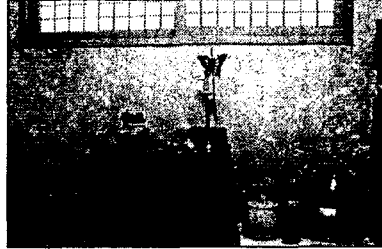
<그림 8> 차문화공간의 예: 주방



<그림 9> 수납장



<그림 10> 차문화공간의 예: 건넌방



것이 장점이다<그림9>. 베란다에 다구수납장을 마련하여 외부생태공간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으나 각 방마다 간결한 꽃꽂이 작품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멋을 연출하고 있다. 건넌방에 마련한 차문화 공간에는 장식장과 촛대, 화로 등이 놓여있어 조선조 여인의 방을 연상케 한다<그림10>. 화로에 인두를 쪼고 인두판에 형짚을 꼭꼭 눌러가며 쿠션, 지갑,

차상보 등의 소품을 만들어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 한지 공예작품을 만들어 장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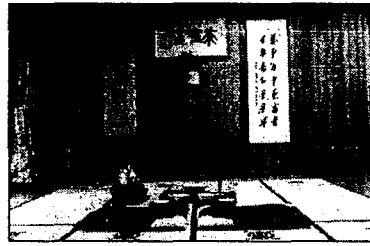
(3) 질충식 도시형 (사례 39)

<사례 11>는 빌라형 공동주택에 마련한 차문화공간이다. 거실에 마련한 찻자리<그림 11>와 2층의 마루에 있는 차실<그림 12>이다. 이

<그림 11> 차문화공간의 예: 거실



<그림 12> 차문화공간의 예: 차실



<그림 13>차문화공간의 예: 건넌방



<그림 14> 차문화공간의 예: 발코니





두 곳은 많은 손님이 왔을 때나 차교육을 할 때 활용한다. 한 두명의 손님일 때에는 건넌방을 사용하며<그림 13>, 바깥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에는 발코니를 차문화공간<그림 14>으로 활용한다.

위의 세 사례는 각기 도시생태적 주거공간에 차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거실을 활용하여 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차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나가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발코니를 활용하거나 곳곳이 작품으로 생태환경과 연관되고 있었다.

2) 단독주택

(1) 전통적 도시형 (사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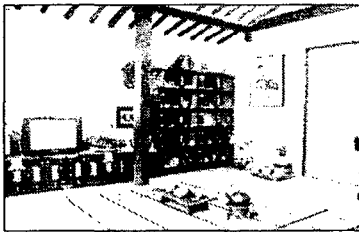
<사례 12>는 전통적 한옥형태에 편리한 내부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이다. 거실의 천정에는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 색다른 생태적 멋을 연출한다(그림 15). 화문석 위에는 다반과 찻잔이 있고 화로와 탕관이 있다. 문갑 위 수반에는 야생화가 피어있고 장식장에는 찻잔이 잘 정돈되어 있다. 특히 담으로 둘러쳐진 안

쪽에 마당이 있어 나무를 심고 화초도 기르며 아침저녁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공간이 있다<그림 16>. 앞마당에 명석을 깔고 차석을 차리면 그곳이 차를 마실 수 있는 훌륭한 생태적 차문화공간이 된다. 서재에는<그림 17>. 주인이 차를 즐겨하므로 항상 다구를 준비해 놓았으며, 등꽃을 주제로 한 서화도 있다. 이처럼 실내가구와 다구를 갖춘 차문화공간은 손님접대나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그림 18>.

(2) 생태적 전가형 (사례 13)

<사례 13>는 집주위에 담이 없는 자연에 그대로 열려져 있는 전가형(田家形) 단독주택이다. 집 앞뒤에는 산이 보이고 옆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수련이 자라고 있다. 앞마당이 넓어 생태공간과 호흡할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 그러므로 생태적 공간을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곳은 도자기 교육장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손님방이 따로 있어서 그 곳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다구와 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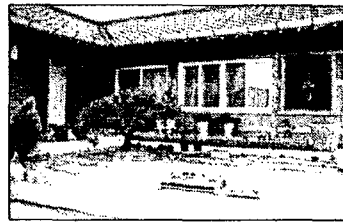
<그림 15> 차문화공간의 예: 거실



<그림 17> 차문화공간의 예: 서재



<그림 16> 차문화공간의 예: 정원



<그림 18> 차문화공간의 예: 차실



<그림 19> 차문화공간의 예: 뒤뜰



<그림 20> 차문화공간의 예: 앞뜰



<그림 21> 차문화공간의 예: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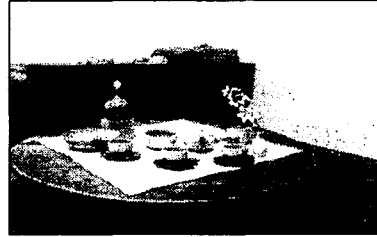
<그림 22> 차문화공간의 예: 연못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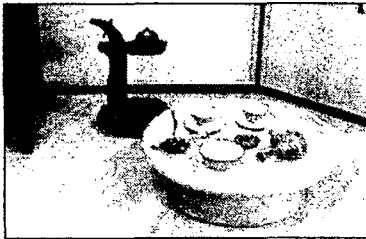
<그림 23> 차문화공간의 예: 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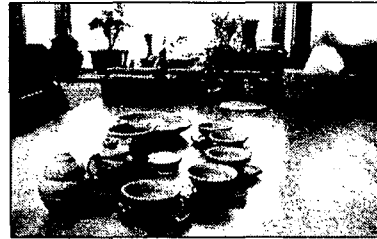
<그림 24> 차문화공간의 예: 노인방



<그림 25> 차문화공간의 예: 손님방



<그림 26> 차문화공간의 예: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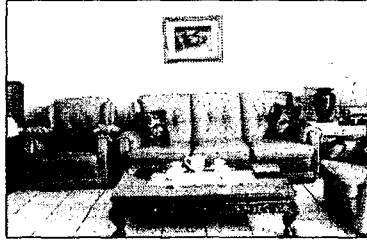


준비해놓고 있다. 또 실외의 뒤뜰, 앞뜰, 바위, 연못가 등을 생태적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내의 손님방, 노인방, 주방 등에서도 밖의 경치를 바라보며 차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자유롭고 가변적이며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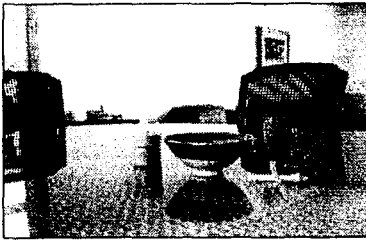
적인 한국 차문화공간의 성격을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실외에서는 가벼운 대소쿠리에 다기를 받쳐 들고 나가 뒷뜰 잔디위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그림 19>, 벚꽃 나무아래에 다반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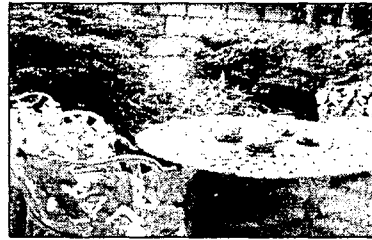
<그림 27> 차문화공간의 예: 거실



<그림 28> 차문화공간의 예: 식당



<그림 29> 차문화공간의 예: 정원



기를 놓고 자연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면<그림 20> 운치 있는 찻자리가 된다. 때로는 넓은 바위(정원석)가 찻상이 되기도 하며<그림 21>, 집 가까이 있는 연못가에 찻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그림 22>. 이러한 공간은 자연물을 찻상으로 응용한 것으로, 전원생활의 생태 공간 특징을 생활에 실천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실내에서는 마루위에 고목으로 된 찻상을 사용하고<그림 23>. 노인방에도 원형의 소반에 다기가 준비되어 있다<그림 24>.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의 일과를 말하는 곳이다. 저녁이면 가족이 모두 모여 다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둥그런 소반이 소박하고 정겨운 멋을 느끼게 한다. 노인이 소외되기 쉬운 현대에 가족간에 유대가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이다. 가끔 손님이 묵어가는 손님방에는 손님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차도구를 준비해 놓았다<그림 25>. 주방 식탁위에 다구를

마련하여, 창 너머로 전원풍경을 보며 식사 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림26>.

### (3) 서양적 도시형 (사례 14)

<사례 14>는 실생활에서 차생활을 활용하는 좋은 예로서 서양차와 동양차, 이에 따른 차도구를 갖추고 상황에 적절한 차생활을 하고 있다. 차문화공간은 따로 없고 필요할 때 차를 마시는 것이 차문화공간이 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편안하고 자유롭게 차를 마시면 그곳이 바로 차문화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27>는 거실에서 차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가구와 그림에서 서양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서양차인 홍차세트가 잘 어울린다. 취사를 하는 주방과 식사를 하는 식당이 구분되어 있고, 식탁 위에는 다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사이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 편리하다<그림 28>. 화단에

<표 4>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활용한 차문화공간의 사례

공간구분	주택구분			특징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계	
거실	3	2	5	가족의 단란, 손님방문, 차교육시 차문화공간 및 교육장으로 활용
차실(전용 차문화 공간)	3	2	5	사색, 명상 등 은밀한 일이 있을 때 활용
안방	·	·	·	차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음
건넌방	2	·	2	차교육 및 침선 공간
노인방	·	1	1	노인과의 대화공간
학생방	1	·	1	다구가 항상준비되어 있어 학습시 활용
손님방	·	1	1	손님 방문시 활용
문간방	1	·	1	차교육 공간
서재	·	1	1	독서 및 휴식공간
주방	1	1	1	식사 후의 차생활공간
식당		1	1	식사 후의 차생활공간
베란다 뜰·마당·정원	2		5	자연과 접하는 생태공간
		3		

마련한 실외 찻자리는 식당에서 내다볼 수 있으며 식사 후 차를 즐기는 공간이다<그림 29>. 이곳은 흙을 밟을 수 있고 식물을 키우며 감상할 수 있는 생태적 차문화공간이다.

### 3)현대 차문화공간의 사례분석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가구와 단독주택 3가구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표4>와 같다. 공동주택(3가구; 사례 9, 10, 11)과 단독주택(3가구; 사례 12, 13, 14)에서 전용차실이 있어 차문화공간으로 사용한 사례는 5가구(사례 9, 10, 11 12. 13)이며, 거실을 활용한 사례도 5가구(사례 9, 10, 11, 12, 14)이다. 이것은 전용차실이 있어도 가족이 모이거나 손님이 오거나 차교육을 실시할 때 거실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실을 차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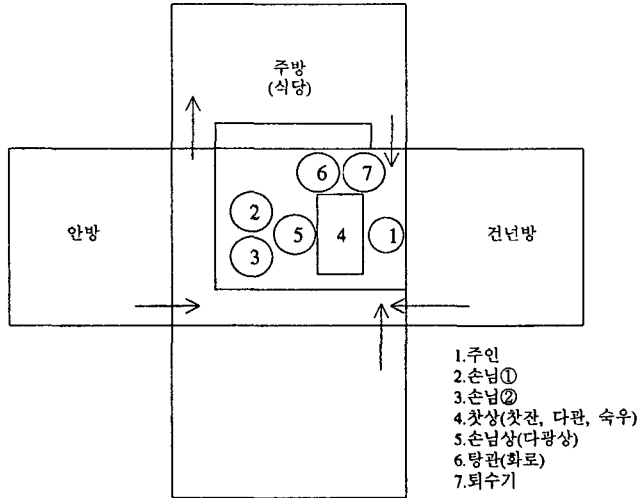
이 외에 건넌방(2), 노인방(1), 학생방(1), 손님방(1), 문간방(1), 서재(1), 주방(1),식당(1), 베란다(2), 앞뜰 및 정원(3) 등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주거공간이 가변적인 차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베란다, 앞뜰 및 정원에 찻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설비, 즐거움 등 실내 조경적 요소들을 차문화공간으로 끌어들여 생태적 공간화 하면서 어메니티(Amenity)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민족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동화하고 자연에 귀의하려는 잠재적 민족성이 있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 3. 현대 차문화공간의 재구성

위와 같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현대 차문화공간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거실과 전용 차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적 차문화공간으로서 이상적인 현대 차문화공간은 주거환경 내 적절한 곳에 차문화공간을 두고 수세 공간 및 수납 공간 등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물 공급과 수

<그림 30> 차문화공간의 대표적 사례: 거실 기능도



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다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 주인의 취미에 맞는 차도구와 간결한 실내장식이 조화되는 공간을 말한다.

한편 현대 차문화공간에서의 자연공간요소는 역사적 고찰에서 나타난 차문화공간에서의 그것보다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구조물과 공간의 특성이므로 채광, 통풍, 공간 설계, 기타 소품의 활용 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 및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와 차문화공간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잠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자연공간요소는 현대 차문화공간에 이미 영향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문화공간은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 공간 중에서 비교적 동선이 빈번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곳이 좋다. 거실이 차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때 손님과 귀족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가족들의 출입으로 개인권(Privacy)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가리개를 활용하여 개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 차문화공간으로서의 현대 차문화공간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림30>과 같다. 각 방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가족이 모여 단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손님이 오거나, 차교육을 실시할 때 거실이 차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전용 차실은 손님의 수가 적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와 명상을 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거실을 깨끗이 정돈하고 가족의 취향에 맞는 차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족의 화목과 이웃, 친지와 교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 차문화공간 창출이 갖추어야 할 핵심이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디지털 문명으로 인간과 인간을 고립시켜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때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매체가 차문화이다. 차문화공간은 기본적으로 심신의 안정

과 재생산을 위한 휴식의 장소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형이상학적 공간이다. 좀 더 한국적 전통미와 예술미가 연출될 수 있도록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종교와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 내에서 애정이 넘치는 따뜻한 차는 인간의 기본적 정서 발달에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 생활 내에는 차문화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방, 거실, 학생방, 서재, 식당의 생활공간이 필요에 따라 차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은 어느 곳이든지 깨끗하게 정돈되고 고상하고 세련된 조형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과 다방(茶房)의 조형적 소품들의 문제점은 옛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 놓아 실내장식용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 소 여물통, 맷돌, 기차길, 절구통, 새우젓독, 지게, 키 등)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으므로 차문화공간에 적절히 어울리는 조형적 소품의 선택이 필요하다. 가정과 사회에서 자유롭게 차생활을 하면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생태적 공간을 활용한 차문화공간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환경보전 행동으로 연계되는 검소한 차생활로 풍요로움을 절제하는 절약 추구형 생활모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에너지, 자원문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등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와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최남숙, 2004) 오늘날 환경문제는 그릇된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또한 풍요로운 생활과 대량소비가 원인이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생태적인 생활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최남숙, 1994)

본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문화의 근본정신인 검소한 생활 철학을 실생활에 실천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이 환경오염을 더욱 증가시키게 됨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차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태적 차문화공간은 가정교육 및 인성발달과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 론

우리나라의 차문화공간은 고조선 시대의 웅(雄)을 시초로 왕실(王室), 당(堂), 방(房), 전(殿), 원(院), 루(樓), 정(亭), 대(臺), 재(齋), 실(室) 등 인공적 공간과 산, 들, 냇가, 나무 아래 등과 같이 자연과 밀접한 자연 생태적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차문화공간의 구성요소로는 실외적 요소인 축조물, 실내적 요소인 조형적 소품(차도구와 장식품), 차의 정신을 들 수 있다. 차의 정신은 고조선의 신선사상으로부터 유·불·선(儒·佛·仙)과 삼덕(三德), 오계(五戒)를 기본으로 한 풍류도(風流道)가 한국의 차정신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차정신은 실외적 요소인 축조물, 실내적 요소인 조형적 소품(차 도구 및 장식품)과 함께 차문화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어떤 일정한 틀이 아닌 자율적이고 가변적인 차문화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자연환경에 순응하려는 차생활이 궁극적 목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생태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친자연적인 생태적 생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차문화가

생태적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산과 들, 냇가, 나무 등의 실외공간과 정자와 루, 안방, 사랑방, 대청 등 실내공간을 활용했던 생태적 차문화공간과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전통적 동양사상을 구현하고 Morrison의 인간생태학 모델 (Human Ecosystem Model)인 인간환경공동체를 만드는 일로써 현대 디지털 문화의 시대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의 차문화공간은 자연친화적이며 환경보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차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생태적 관점을 차문화공간 사례에 적용하여 역사적 차문화공간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조선시대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사례, 현대의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되고 비교 및 분석되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에게는 차생활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차문화공간은 포변화되지 않았으며 사랑방, 대청, 정자, 암자, 바위, 들, 냇가 등 다양하게 응변하면서 인공축조물을 사용하거나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였다.

따라서 현대에는 자신의 종교와 철학을 바탕으로 선조들이 어떤 한 물질에 얽매어 틀을 정하고 구속받지 않은 것처럼, 실내와 실외의 다양한 공간에 자율적으로 적응하면서 인공조형물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현대 차문화공간의 사례를 분석한 후 생태적 차문화공간을 위하여 물사용 공간, 수납공간, 차림공간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대의 차문화공간을 일정하고 규격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선조들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차문화공간을 자연의 한 부분인 생태공간으로 이해하여 적절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단순하고 소박한 조형예술철학에 따라 의

미체계로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즉 현대 우리의 차문화공간은 어떤 형태로 따로 규격화 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차문화공간으로서 자신의 철학(哲學)이 숨쉬는 의미체계(意味體系)로서의 차문화공간의 창출을 모색하여야 하며 생태적 차문화공간은 그러한 차정신을 구현하되 현실여건에 맞게 가변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가 체득한 ‘정좌처다반향초 묘용시수류화개(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는 도(道)의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사색과 명상을 하면 이러한 경지를 체득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조들의 온고지신의 지혜를 현대의 차생활에 도입하여 정신적 차원의 질을 높이는 것은 차문화공간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문화공간을 현대의 주거 공간 내외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차문화공간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절제의 미덕으로 단순성을 함축하여 고귀한 분위기를 표출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선행연구가 적어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차생활의 경험과 강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국내외의 다서 등을 활용하였으나 현대의 차문화공간 사례의 부족으로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이것은 주로 전문적 차생활 지도자나 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예가를 중심으로 한 사례와(5가구), 일반 주부의 사례(1가구)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생활에서 차문화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거실 등 적절한 공간에서 가변적으로 자유롭게 가족이 모여 차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과 예

질이 생태계 속에서 실생활로 연계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세기이다. 가변적이고 자율적인 한국의 생태적 차문화공간에서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성이 접목되는 차생활 즉,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경을 중요시하고 문화의 가치성을 접목하여 공감할 수 있는 차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차문화의 문제점 및 차문화공간의 환경적 개선방안은 앞으로 현대 차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부식지음, 이병도 역주(2002).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 2) 국립경주박물관(1999).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 3) 동아출판사편집부(1990). 동아원색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 4) 민경현(1991). 한국의 정원문화. 예경산업사.
- 5) 박연곤(1993). 한국의 정자. 대원사.
- 6) 석용운(1993). 韓國茶藝. 도서출판 艸衣.
- 7) 운평연구소편(1999). 국어사전. 금성교과서.
- 8) 운평문화연구소편(1999).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9) 이형석(1998. 9). 점필재 김종직의 차에 관한 업적 연구. 한국차학회지 4(2)
- 10) 일연지음, 김원중옮김(200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11) 정영선(1998). 한국 茶文化. 너럭바위.
- 12) 정현식(1994). 차실의 조형과 건축체험. 「茶文化 研究誌」 제4권, 한국차문화연구소(45~46)
- 13) 최남숙(2004).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 교문사.
- 14) 최남숙(1999). 생활환경론.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15) 夏寓, 박일봉 편역(1995). 「山海經」 卷7, 육문사.
- 16) 현영조(2002. 3). 조선시대 대표적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연구(II). 한국차학회지 8(1), 한국차학회(8~10)
- 17) 홍시환(1995). 환경생태학개론. 한국생활환경연구원.
- 18) 효동원편(1986). 다향선미. 비봉출판사.
- 19) Morrison, B.(1975). Socio-Physical Fac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in Single Family Dwelling: An Empirical Test of a Human Ecosystem Model.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Ph. D. Michigan State University.
- 20) Richard Resister, 鶴田榮作 역(1993). Eco-city Berkeley. 工作舎.